

사회

‘대학 경쟁력’ 전남대·순천대 상위권

교과부, 취업률 등 8개 분야 첫 평가

전국 최고점수는 고려대·성균관대

전남대와 순천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점수는 고려대와 성균관대였다. 교과부가 최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한 ‘대학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전남대·순천대가 총 8개 영역에서 29점(총점 40점)을 받았다. 이어 목포대 28점, 조선대 27점, 동신대·광주여대 24점, 남부대 23점, 호남대 22점, 광주대 21점 등의 순이였다.

다. 경쟁력 평가는 ▲재학생 충원을 ▲전임교원 확보를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학술진흥재단 논문등재 실적 ▲국제화실적 논문등재 실적 ▲신입생 충원을 ▲중도탈락 학생률 등 8개 분야에서 각 대학이 낸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것으로 분야별로 1~5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과부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경쟁력 점수를 매겨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대는 재학생 충원에서 만점인 5점을, 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취업률·중도탈락률·SCI급 1인당 논문

Table with 2 columns: University Name and Score. Includes 전남대·순천대 (29), 목포대 (28), 조선대 (27), 동신대·광주여대 (24), 남부대 (23).

전남대·조선대·순천대·목포대 등 지역 주요 4개 대학은 모두 재학생충원율이 만점이었으며, 신입생충원율도 4~5점으로 우수했다. 특히 전남대와 조선대는 대학 연구능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에서 각각 4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동신대 등 나머지 5개 대학들은 주요 대학과 달리 재학생충원율이 2점으로 낮은 평점을 받았으며, 중도탈락률도 2점 이하였다. 이 중 남부대는 취업률·정규직취업률 등 2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동신대는 취업률, 광주여대는 신입생충원율에서 각각 만점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중에서는 기독교간호대가 34점으로 영진전문대(35점)에 이어 전국 2위(도립남해대·연암공업대) 그룹에 포함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교 졸업식 풍경.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의 졸업시즌이 시작됐다. 4일 광주 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친구의 머리에 밀가루를 뿌리며 축하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상정보 공개 아동성범죄자 비중 전남 1위·광주 2위 ‘불명예’

Table showing the ratio of child sexual offense offenders per 100,000 population in various regions. Jeonnam is highest at 31, followed by Gwangju at 20.

전남지역의 인구 100만명당 ‘아동성범죄 신상공개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 신상공개 대상 아동성범죄자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에서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결정된 아동성범죄자 수는 31명으로, 100만명당 1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100만명당 신상공개 대상 아동성범죄자 수(4.2명)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광주도 신상공개 대상 아동성범죄자가 20명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0만명당 신상공개자 수는 14.0명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 100만명당 신상공개자 수는 ▲제주 8.9명 ▲대전 8.8명 ▲경북 8.2명 ▲부산 7.9명 ▲충북 7.2명 ▲서울 4.2명 등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일수록 인구대비 거주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인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상공개 대상 아동성범죄자가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신상공개자 수는 31명으로, 경기(63명)와 서울(43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광주도 신상공개 대상 아동성범죄자가 20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신상공개자가 많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느림보’ 완도소방파출소

능장출동·진화미숙 빈축. 화재당시 출사에는 한우 24마리가 있었고 인근 다른 출사에도 수십 마리의 한우가 있어 완도소방파출소의 능력대처는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대해 완도소방파출소는 “완도지역에서 119신고와 하면 해남소방서에서 접수해 완도로 전달되는 데다 파출소 인력도 9명에 불과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완도소방파출소의 화재진압 상황을 전해들은 안도지역 주민들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방파출소의 기동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삼성전자 기술 중유출 기도 협력사 대표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4일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철은 또 김씨에게 병장고 관련 기술과 파일을 전달한 혐의로 삼성전자

담양군에 또 돈상자

지난해 2억 이어 이번엔 200만원 배달. 지난해 현금 2억원이 든 토마토 상자가 담양군에 전달된 데 이어 6개월 만에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상자가 군청에 배달돼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2억원 기부 6개월만인 이날 오전 11시에 한 중학생이 군청 행정과 사무실에 200만원과 메모지가 든 음료수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를 전달한 이 학생은 “군청 정문 앞을 지나가는



광주시장 前 비서관에 서대석 前 전남대병원 감사

서대석 前 전남대병원 전 상임감사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 전 감사의 해임은 부당하다”라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감사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감사직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돼 최근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벗어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지봉 두 수장’ 사태가 전대병원에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애 뽀뽀 안해?” 호프집 여주인 폭행

호프집 여주인에 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30대 유부남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은 4일 이모(39·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검야 조사중.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갔으나 김씨가 입맞춤을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오리발. /이종형기자 golee@

Advertisement for 'Seoul Gosihakwon' (서울고시학원) featuring statistics on public servant exam success rates and promotional text for their courses.

Advertisement for 'Seoul Police Specialized Academy' (서울경찰전문학원) highlighting its status as a top training center for police officers.